

# 당국 “접종 금기 해당하는 만성질환 없어”

다음달 1일부터 만 75세 이상 화이자 백신 접종  
 “기저질환자 반드시 접종해야...코로나19에 취약”  
 “접종 후 다른 사람과 있어야 도움받을 수 있어”  
 “아나필락시스, 15~30분 관찰 필요...적절히 치료”

백신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어려운 만성 질환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접종 당일 몸 상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9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예방접종 전문가 초청 설명회'에서 “특정한 만성 질환이 백신 접종 금기에 해당하는 건 없다”며 “질환이 아니라 접종 당일 상태에 따라 백신 접종이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문가가 초청 설명회는 다음달 1일부터 접종이 진행되는 만 75세 이상 접종 대상자의 질문을 받는 자리가 마련됐다. 질문 중에는 심장 수술을 했고, 심장병이 있는데도 백신 접종이 가능한가란 물음이 나왔다.

최 교수는 “심장 수술 과거력, 부정맥, 심부전증과 같은 만성질환은 백신 접종 금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복용 중인 약 중 출혈 경향성을 만드는 약물이 있을 수 있다. 접종 후 부위를 잘 눌러서 혈종(출혈로 혈액이 한 곳에 고여 형성된 혈액 덩어리)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재훈 가천대내과 예방의학과 교수는 “오래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며 “예방

접종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저질환자와 고령자부터 접종하는 이유가 코로나19라는 병 자체가 기저질환자와 노약자에게 치명적인 질병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80세 이상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5%에 불과하지만, 사망자의 절반이 80세 이상 확진자다. 이 중 요양병원 입원 환자나 요양원 입소자가 전체 사망자의 3분의 1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정 교수는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단순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 건강한 어르신들이 백신 접종 이익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다”며 “대부분의 만성질환자도 현재 몸 상태가 좋고, 급격한 증상 악화가 당장 없다면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교수는 “팔기 질환을 가졌거나 현재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접종을 피해야 한다”며 “그런 분들이 컨디션을 추스를 수 있고 충분한 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2분기 접종은 기관별로 넉넉한 일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만성 질환보다는 접종 당일 몸 상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현 연세대 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의료진이 접종 전 예진을 진행하



고, 접종 금기가 있는지 사유를 검토하겠지만, 감기 기운이 있는 날 가면 맞을 수 없다”며 “접종 전까지 세 끼 식사를 잘하고 아프지 않도록 건강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접종 후에는 사후 관리를 잘 해야 한다. 무리한 운동은 당연히 안 되고, (접종) 하루~이틀은 목욕 등을 하면 안 된다”며 “고강도 운동, 음주도 삼가고 접종 부위는 당연히 깨끗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접종 후에는 사후 관리를 잘 해야 한다. 무리한 운동은 당연히 안 되고, (접종) 하루~이틀은 목욕 등을 하면 안 된다”며 “고강도 운동, 음주도 삼가고 접종 부위는 당연히 깨끗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접종 후에는 사후 관리를 잘 해야 한다. 무리한 운동은 당연히 안 되고, (접종) 하루~이틀은 목욕 등을 하면 안 된다”며 “고강도 운동, 음주도 삼가고 접종 부위는 당연히 깨끗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혈압이 어느 정도 조절된다면 혈압 급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접종 후 15~30분 안에 발생하는 중증 이상반응인 아나필락시스도 대부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아나필락시스는 접종 후 15분에서 30분 정도 접종 장소에서 관찰하면 거의 90% 이상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늦어도 1시간 이내에는 대부분 나타나 접종 장소에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나도 조기에 인지되고, 에피네프린과 같은 약물이 바로 투여되고, 호흡기 보수가 잘 이뤄지면 대부분 잘 회복될 수 있다”며 “인과관계가 확실치 않거나 드문 다양한 이상반응은 면역글로불린이나 스테로이드 등 다양한 약물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반응에 대한 두려움을 너무 많이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 영암소방, 드론(공중)감시단으로 지역 산불화재 사수

영암소방서(서장 임동현)는 우리지역 산불화재를 예방순찰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응원협정을 체결하여 드론(공중)감시단을 구성하였다.

드론(공중)감시단은 영암소방서 화재감시단과 월출산 국립공원사무소영암국유림관리소, 그리고 지역 내 평소 우리 고장 안전문화 사수에 발 벗고 나서준 영암드론교육원, 신한에어 비행교육원이 함께해 주었다.

영암소방서 드론(공중)감시단은 국립공원인 월출산 등산로를 기준, 도감사, 천황사, 산성대 3개 구역 일대를 설정하여 영암소방서와 국유림관리소, 월출산 국립공원사무소에서 매주 산불을 감시하기 위해 순찰활동을 일할 예정이며, 미암면 일대는 신한에어 비행교육원에서 들불 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영암소방서는 산불화재가 많은 4·5월 특별기간동안 임야화재 피해 우려지역 및 등산객이 많은 지역을 고려 드론(공중)감시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이후에는 차세대 드론을 활용 더욱 넓은 지역, 광범위한 화재예방활동 영역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임동현 소방서장은 “드론(공중)감시단 운영으로 산불화재 조기경보와 즉각적인 계도 활동이 가능하여 산불 화재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민들께서 산불 화재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아름다운 우리 고장의 국립공원 월출산과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 순천소방, 소방관 사칭 소화기 판매사기 피해방지 당부

전남 순천 등지에서 ‘소방관을 사칭하여’ 소화기를 시민들에게 고가에 판매하는 사기범이 판을 치고 있다.

사기범은 주로 독거노인 가정에 방문하여, 멀쩡한 소화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에게 “제가 소방관인데 소화기를 바꾸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며 소화기를 5만원에 강매하고(실제 판매가 13,000원), 멀쩡히 있던 소화기를 수거해 되파는 형식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CCTV가 없는 집을 사전에 물색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내용이 확인될 경우 공무원사칭·사기·강매 등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순천소방서는 관련 피해사례를 접수 후 경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하수철 순천소방서장은 “소방서는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무상 보급을 하고 있을 뿐, 절대 시민들에게 소화기를 판매하지 않는다”며 “위 범죄행위는 소방서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선량한 시민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히는 악질적 범죄행위이므로 피해사례를 접수 받는 즉시 경찰에 통보·이첩하고 동일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소방본부는 2021년에도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 보급 계획을 세워 취약계층에게 소화기·감지기를 우선적으로 ‘무상’배부하고, 일반 시민에게도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 순천국유림, 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저지

### 지자체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는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통한 재

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목재생산업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직접 방문했다.

따라서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확인을 확인하고, 화목 사용농가 등은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여 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였다.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전면 이

동을 제한한다.

또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소나무류가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방제뿐만 아니라 소나무류의 이동으로 인한 인위적인 확산방지 또한 중요하다”며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및 국민들도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동을 제한한다.

또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소나무류가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방제뿐만 아니라 소나무류의 이동으로 인한 인위적인 확산방지 또한 중요하다”며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및 국민들도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 완도해경, 봄철 어선 화재 예방 안전관리 강화 실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봄철 큰 일교차로 어선에서 난방기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해상 화재 취약지 사전 예방 등 해양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밤낮 큰 일교차로 인한 선박 내에서 잦은 난방기 사용과 인화성 물질 방치 등으로 인한 선박화재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아 선박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에 완도해경은 관내 항포구의 순찰활동을 강화와 조업 중인 어선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안내방송 등 적극적인 홍보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화재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3년간 완도 해상과 항포구에서 발생한 화재선박은 총 33건이며, 2019년 7건, 2020년 21건, 2021년 5건으로 화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김영남 안전관리과장은 “봄철 어선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완도=이민혁 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

준솔루션